

민천일보

제2854호

(성서 주간)

2024년 11월 24일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은계 성모 방문 성당>, 2019년 설립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다니 7,13-14

화답송 | 시편 93(92),1ㄱ-1ㄷ-2.5(㉠ 1ㄱ)

-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 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제2독서 | 묵시 1,5ㄱ-8

복음 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요한 18,33ㄴ-37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

‘나자렛 사람 예수’는 세상의 역사에서는 실패한 인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선 지 삼년 만에 권력자들에게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패썹해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하던 이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던 권력은 허무하게 사라졌고,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이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며 목숨 바쳐 순교했고,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진정한 왕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남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억지로라도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되레 산으로 피하셨습니다.(요한 6,15 참조) 세상적인 문법의 왕이길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증언하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를 통해서 참된 임금이 되셨습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당신은 진리를 증언하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왕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은 다른 이들이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바라며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만, 그리스도 왕은 먼저 사람들을 섬기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당신 스스로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28)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진리를 조금이

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이들을 보면 한심하고 가련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왕직’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범’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한마디로 봉사직입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망으로 허물어지는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구하는 일입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집이나 방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십자가상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 뒤에는 성지 주일에 손에 들었던 ‘성가지[聖枝]’를 걸어두곤 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겸손하신 주 예수님을 나는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잘 살아갑시다.
아멘.



이재학 안티모 신부
부평1동 본당 주임

세계청년대회(WYD)의 진행과 교구 대회(DID, Days in Dioceses)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 | 교구 청소년사목국 국장

제39차 세계 젊은이의 날인 오늘은 로마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WYD 상징물인 십자가와 성모자 이콘을 이전 개최국이었던 포르투갈의 청년들에게서 전달받는 날입니다. 이제 이 상징물을 우리나라로 모셔 와, ‘2027 서울 WYD’가 개최되기 전까지 인근 다른 나라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교구를 순례하며 기도를 통해 WYD를 준비하게 됩니다.

WYD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여름방학 기간에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화요일 오후 개최 교구의 교구장이 집전하는 개막 미사로 시작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WYD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교님들이 WYD 주제의 의미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직접 강의하는 ‘교리교육 성삼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회 내내 성소에 대한 안내, 고해성사, 젊은이 축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젊은이들과 교황님이 만나는 환영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교황님의 만남으로 WYD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WYD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시간과 밤샘 기도 그리고 주일 아침 파견 미사까지 이어 집니다. 특히 파견 미사에서는 교황님께서 주례하시면서 강론을 통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강력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렇게 WYD의 본 일정이 교황님과 젊은이들의 만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본 대회의 이전 주간에는 개최 국가의 여러 교구를 젊은이들이 방문하여 그 나라 개별 교회의 신자들과 만나게 되는 ‘교구 대회(Days in Dioceses)’가 진행됩니다. 2027년 서울 WYD 때에도 많은 젊은이가 이 ‘교구 대회’부터 참가할 것이며, 우리 인천교

구에는 약 1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구 대회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젊은이들은 방문한 교구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 본당의 신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본당과 가정 공동체를 만나 모두가 같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이자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환대와 친교, 일치이 시간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의 만남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뜻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걱정하지만, 그 보다는 같은 신앙 안에서의 만남과 친교를 통한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WYD의 특별함은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사의 참가자도, 딴 나라를 방문한 여행자도 아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사도 11,26)을 만나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선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WYD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례자’로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구를 방문하는 젊은이들을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 13,2)

· 이번 회차를 끝으로 세계청년대회(WYD) 연재가 마무리됩니다.

갈갈수녀님



믿음은 스스로 기적을 만듭니다

할머니의 유산

이서원 세실리아 | 구월1동 본당

올해 3월 저희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이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외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안 계십니다. 제 나이 40대 중반. 100세 인생의 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이에 제일 큰 울타리가 모두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여 조금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할머니는 70대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으셨고 늦은 세례를 받은 만큼 더욱 열심히 성당에 다니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가톨릭 신자에게 세례는 또 다른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가족들은 외할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돌아가신 저의 친할머니 또한 믿음이 매우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능숙하게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방 벽에는 커다란 전지에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크게 쓰여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문들을 하나둘씩 열심히 적어 가며 외우셨습니다. 할머니 댁에 놀러 갈 때면 전 늘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곤 했는데, 할머니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켜놓으시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려 매년 할머니보다 먼저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저는 가톨릭 신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끼 같은 제 딸들도 열심히 성당에서 복사를 하고 반주도 하며 작은 신앙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할머니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예전 딸의 그림에 할머니 손에 묵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을

보고 아이들이 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구나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신실한 할머니들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실한 할머니가 계신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할머니께 “할머니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여쭙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길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조상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그리고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대답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의 할머니 역시 매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이들의 할머니는 묵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제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과 현시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며, 아직 삶에 미성숙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을 살면서 느낀 할머니들의 진심이 담긴 성찰과 통회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저는 그저 ‘할머니의 기도’라는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오늘,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든든한 성가정 안에 할머니의 기도라는 큰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할머니에서 아이들의 할머니로 주님의 신앙이 이어지듯,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도 지켜 주시어 모든 이들을 주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주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그 날까지 주어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제전체회의

교구 홍보실, 교구 사무처



5일(화)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170명의 교구 사제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제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성체조배 후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2025년 사목교서를 해설하며, 2025년 희망의 순례자 희년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였고, 성체조배와 전대사의 은총을 통해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교회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교구청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 안내하였고, 특별히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시흥안산지구 청년공간 엘피스 설명과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관한 설명으로 앞으로의 청년 사목에 대한 양성 지표와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현장 연대방문

교구 생태환경사목부

13일(수) 사회사목국 생태환경사목부(=국장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 생태환경 전담)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현장 연대방문을 하였다. 삼척 원전 백지화 기념탑에 집결하여 그 유래와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포스코가 시공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인 맹방해변으로 향하였다. 발전소 건설로 인해 파괴된 바다를 바라보며 수생식물과 해변,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삼척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반대 피케팅을 가졌다. 이어서 탈원전·탈석탄·탈송전탑 순례로써 시내를 돌아 삼척우체국 앞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였다. 강론에서 오 신부는 우리의 지나친 욕망이 오히려 자연과 인간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으며 우리의 생활방식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함을 촉구하였다.



본당 사무직원 직무 교육

교구 홍보실, 교구 사무처



13일(수) 교구 사무처(=사무처장 김일회 빈첸시오 신부)의 주관으로 본당 사무직원 직무교육이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총 141명의 사무장 및 사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회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김 신부는 강론에서 “본당 사무직원의 직무를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본분을 계속 되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미리 받은 건의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미사 후 교구 전산실에서 본당 양업에 대한 실무 안내가 있었고, 교구 사무처에서는 2025년 예산 및 본당 관련 교육에 대해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교구본당사무직원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제23기 선교사학교 종강 및 수료 미사

교구 홍보기자 장민영 클라루디아

14일(목) 교구 복음화사목국 선교사목부(=부국장 이현창 안드레아 신부)는 교구 이안나 홀에서 복음화사목국 국장 정병덕 라파엘 신부의 집전으로 제23기 선교사학교 수료 미사를 봉헌하였다. 강론에서 정병덕 신부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정을 걸어온 수료자들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말씀의 힘을 받아 이웃들을 초대하고, 그들 안에 이미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부탁하였다.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26주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 59명의 선교결의문 낭독과 평신도 선교사증 및 수료증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봉사 20년 차를 맞은 선교사목위원 봉사자의 공로를 격려하는 축복장을 수여의 시간도 가졌다.



희망을 여는 가게 16주년 기념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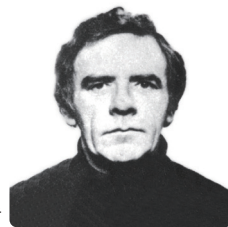
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



18일(월) 희망을 여는 가게 부평점에서 16주년 기념 미사가 이상희 마르티노 신부(=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장)의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 신부는 강론에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희망이며, 희망을 여는 가게의 나눔을 통해 비워진 공간에 하느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30주년, 50주년까지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2008년 11월 20일 개소한 희망을 여는 가게 부평점은 지자체 및 지역의 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인천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주민, 거동 불편 장기 실업자 및 사각지대 추천자 200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당 월 1회, 5품목의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 생필품 공급매장이다.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글) 목 브렌다노 1981.11.24 선종



교구청

사회교리 주간 사회사목국 특별 포럼

기후위기 시대 농업과 노동 살펴보기

일시: 12/4(수) 19:00

장소: 사회사목센터(답동) 지하

문의: 032-865-6792

551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25/1/5(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본당사목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공소회장 연수

일시: 12/7(토) 10:00~12:0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교구청)

대상: 본당 사목회장단 및 공소회장, 교구 단체장

신청마감: 11/30(토) 18:00까지

신청접수: 032-761-6676(팩스)

문의: 032-761-6675 평협

김포 성당 대림1일 피정

일시: 12/5(목) 9:00~17:00 김포 성당

강사: 김경희 루시아 수녀, 최황진 라파엘 신부

파견미사: 안규태 베네딕도 신부

회비: 5천원(점심 국수 제공)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내·외적, 영적치유)

일시: 매주(목) 10:30~17:30

장소: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정병덕 신부, 이상기 회장, 김완식 회장,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문의: 010-3248-9705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피정: 12/6(금) 매월 첫(금)

10:00~15:30

·소요개방미사: 매주(수) 15:00

·단식피정: 11/25(월)~29(금)

·대침묵피정(요한묵시록): 12/11(수)~14(토)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렉시오 디비나 원리와 실제(피정)

일시: 12/11(수) 15:00~15(주일) 13:00 [4박 5일]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수도원 (회비-30만원)

문의: 010-5230-2986

가정선교회 12월 피정

일시: 12:30~17:00, 가톨릭회관 1층,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12/4(수) 맹진학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2/7(토) 한연홍 신부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2/21(토) 홍성남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6(금)~14(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열두 소예언서 II: 12/20(금)~22(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간석2동 성령기도회 대림피정

“마라나타!(오소서 주 예수님)”(묵시 22,20)

일시: 12/7(토) 9:00~17:00(점심식사-판매)

강사: 김대우 모이세 신부,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010-8880-6952 간석2동 성령기도회

ICPE 정체성 피정

일시: 12/21~22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대상: 가톨릭신자는 누구나

문의: 010-5646-6594(ICPE 카톨릭친)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00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강사: 11/26 이상기 회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5년 피정 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5/1/11~13, 16~18, 20~22,

25/1/24~26, 2/1~3, 7~9, 15~17, 21~23

연말연시(한라산, 해님이, 해돋이): 12/29~25/1/1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故 현상욱 스테파노 신부 2주기 추모미사

일시: 12/1(주일) 14:00 연도와 추모미사

장소: 백석 하늘의 문 묘원

故 김상용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12/8(주일) 14:00

장소: 송내1동 성당

문의: 032-612-0309

교구 체나콜로 미사

일시: 11/25(월) 작전동 성당

12:30 찬양

13:00 성시간 안에 체나콜로 기도

14:00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세지 책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 집 | 일반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방문 및 온라인 위치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접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부개2동 성당 사무장 모집

조건: 한글, 엑셀가능자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문의: 032-505-2048 사무실

bugae2@caincheon.or.kr

25학년도 초등 신규교사 채용계획 공고

기간: 12/2~25/1/3

주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전형일정: 인천박문초 홈페이지,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032-766-6985, 6986

주안7동 성당 관리장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1종 면허 소지자

접수: 12/20(금)까지

문의: 032-263-5004

군종후원회 성탄 선물 전달

모든 군인들에게 성탄 선물 전달(장교 포함)
마감: 12/9(월)
문의: 032-765-6920 군종후원회

천사의 집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교구 직영 천사의 집에서
여성 어르신과 함께 하실 요양보호사 모집
위치: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318번길 30
문의: 032-435-9257

가리파스이주민문화센터 한국어 강사 봉사자 모집

자격: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문의: 010-6634-501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www.holyfcac.or.kr
문의: 02-764-4741~3

글라젯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이주민 자녀 진로 상담 비용: 1회~1만원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문의: 010-7794-6031

섭리 모래놀이 상담소

심리검사, 모래놀이 상담, 가족상담
대상: 아동(유아), 성인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동화마을길 31
(송월동, 섭리노인생활공동체 4층)
담당: 고경희 막달레나 수녀(천주섭리수녀회)
문의: 010-2278-7993

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11/11(월)~25/2/14(금)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과정: 교리학과[주간-주5일], 종교학과[야간-주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대상: 세례 3년 이상 건진자, 고졸 이상(만 75세 미만)
접수: 25/1/17(금)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ac.kr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5차 모집

모집: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개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수능, 내신, 계열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접수: 11/4(월)~12/11(수) / 전형일: 12/14(토)
문의: 02-705-8678
www.soganggame.ac.kr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모임

자격: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으로
세속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문의: 0507-1306-1505

순례 | 기타**해외 성지순례**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2/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2/17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25/3/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25/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25/2/10 이탈리아 일주(희년 전대사) [13일]
25/2/11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25/3/24 파리, 루르드, 바티칸, 로마 등 [11일]
25/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참고: www.catholictravel.co.kr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마카오, 홍콩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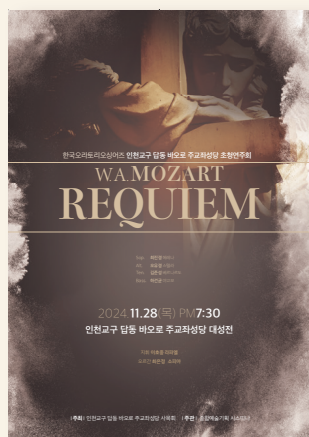
일시: 25/1/30~2/3 [5일]
문의: 010-8705-0319 최금옥 최형베드로

성지순례,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탐방

25/2/15~17 대구17
25/3/1~4 전주 11곳~광주 4곳
25/4/23~27, 7/5~9 울릉도~독도
출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국외: 25/2/5~10 베트남 성지와 수도원
문의: 010-3807-1784

국내, 해외, 제주도 성지순례

25/1/21 태국, 파타야 [5일]
25/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25/3/24 발칸, 메추고리에 [12일]
25/4/21 성모 발현지 4국 [12일]
제주성지순례 6명부터 출발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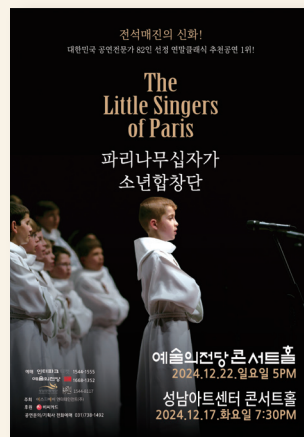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초청연주회 W.A.MOZART REQUIEM

이호중 라파엘 지휘자가 이끄는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의 노래

11/28(목) 19:30

인천교구 답동 주교좌 성당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교황 비오 10세의 '거룩한 가톨릭 음악'
복원에 대한 강조의 뜻을 받들어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진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

12/17(화) 19:3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2/22(주일) 17:00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톨릭 신자 특별할인 10%
전화예매 031-738-1492

영성
쌓기